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사상)

성명 수험번호 3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② 사회적 삶에서 벗어나 개인적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쾌락 산출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망을 실현하고자 해야 한다.
- ④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쾌락을 증진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 ⑤ 쾌락을 멀리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치하는 사람은 불손하게 되고,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은 고루하게 된다. 불손한 것보다는 고루한 것이 낫다.
 ○ 예(禮)는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소한 것이 낫고, 상(喪)은 형식을 잘 갖추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낫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 ① 사치와 인색은 모두 예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 ② 사욕(私欲)을 이겨내지 않으면 예를 회복할 수 없다.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의 표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 ④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면 예를 다한 것이다.
- ⑤ 어짊(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예는 허례(虛禮)일 뿐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냐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의 경우 절대적이고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선이 아니라 건강의 증진이 선이다.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① 도덕은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 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 지식은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 ③ 도덕적 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
- ④ 모든 학문의 궁극 목적은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⑤ 도덕적 규범은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4.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성인(聖人)이 무위(無爲)하고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바르게 된다. 법령이 많을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p> <p>을: 성인이 제정한 예(禮)가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인성도 교화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저울이 없으면 경중을 가늠할 수 없는 것과 같다.</p>
(나)	

< 보 기 >

ㄱ. A: 하늘은 어질지 않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가?
 ㄴ. A: 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혼란의 원인인가?
 ㄷ. B: 인위 규범을 없애야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가?
 ㄹ. C: 사람이 귀한 것은 옳음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우리의 이성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 지복(至福)을 누릴 수 있다. 이성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생기는 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 ① 유일한 실체인 신을 인식할 때 생겨나는 정신의 만족이다.
- ② 이성적 인식을 통해 필연성을 극복함으로써 얻는 자유이다.
- ③ 신의 계율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내세에 받게 되는 구원이다.
- ④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신의 은총이다.
- ⑤ 모든 감정을 버리고 이성을 따름으로써 얻는 마음의 평화이다.

[6~7] 갑, 을은 중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하늘이 만물을 낼 때, 기(氣)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한다. 만물은 그 이를 덕으로 삼으니 그것이 성(性)이다. 맑지 않고 두텁지 않은 기에 이가 자리 잡으면 사욕(私欲)이 이를 이긴다.
 을: 하늘은 성의 근원이고 성은 마음의 본체이니 마음을 다 하면 성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 밖에 이도 물(物)도 없으니, 이를 밖에서 찾는 것은 의(義)가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갑은 사람에게서는 성이 있지만 사물에는 성이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효의 이치는 부모에게 있고 내 마음에는 없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성은 마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별 사물들도 이치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가 곧 성이라고 본다.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을 부여하여 악을 꺾고 선으로 나아가라고 하였으니, 성이 없다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선악을 선택한 공과(功過)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 보 기 >

ㄱ. 성에는 선천적인 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
 ㄴ. 인간의 성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
 ㄷ.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성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다.
 ㄹ.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K의 행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선한 의지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의무라는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 의무란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포기하더라도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나)	K는 길가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다. 두려워서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사람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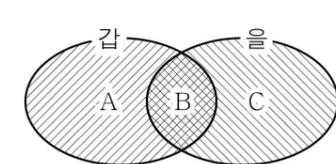
- ① 동정심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의무에 맞고 의무 의식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③ 결과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했으므로 도덕적 행위이다.
- ④ 즉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 도덕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9. (가)의 비유를 제시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커다란 ㉠ 동굴 속 맨 안쪽에 오직 동굴 벽면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죄수들이 있다. 그들은 동굴 벽면에 나타나는 갖가지 그림자들을 진짜 사물들의 모습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 동굴 밖으로 나가 실제 사물들을 보게 된다. 마침내 그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고, 태양이 야말로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	학생: ㉠이 상징하는 세계에서 ㉡가 상징하는 세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사: _____ ㉠ _____

- ① 이성으로 욕망을 조절하고 실재를 인식하려고 힘써야 한다.
- ② 현실이 참된 세계임을 깨닫고 진리 탐구에 헌신해야 한다.
- ③ 이상 세계와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 ④ 정념을 극복하고 신과 자연의 본성인 이성을 따라야 한다.
- ⑤ 은둔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사회 계약은 정치체에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 권력을 부여한다. 일반 의지에 의해 지휘되는 이 권력을 주권이라고 부른다. 을: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체로 통일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된다. 이 인격체가 주권자이며 절대 권력을 가진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범 례 ></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ㄱ. A: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독점할 수도 없다.
 ㄴ. B: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성된다.
 ㄷ. C: 정치권력이 없어도 자연법이 있으면 평화가 보장된다.
 ㄹ. C: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다음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다는 것은 이를 주(主)로 하여 말한 것일 뿐이지 이가 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니니, 사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것은 이기에 선후가 있다는 주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사단을 비롯한 모든 정(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입니다.



< 보 기 >
ㄱ. 갑: 사양하는 마음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다.
ㄴ. 을: 미워하는 마음에도 이와 기가 언제나 함께 있다.
ㄷ. 을: 선한 정뿐만 아니라 악한 정도 기가 발한 것이다.
ㄹ. 갑, 을: 정에는 이가 발한 것도, 기가 발한 것도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이성에 따라 활동하고 그 이성을 가꾸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 어떤 활동을 잘 수행하려면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덕에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있다.

(나)

		(A)		
	(B)			

[가로 열쇠]
(A): 좋은 운수. 예) 그 경기에서 ○○의 여신은 우리 편이었다.
(B): 복을 기원함. 예) 무속에는 ○○ 신앙적 요소가 깃들여 있다.

[세로 열쇠]
(A): 개념

- ①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②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습관화한 덕이다.
③ 어떤 존재가 지닌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이다.
④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중용인지 파악하게 해 주는 덕이다.
⑤ 덕을 갖추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 실현되는 것이다.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들은 오직 이익 때문에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연적 욕망을 줄이고 정부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
을: 사람들이 어떤 정부의 영도 일부를 향유한다면,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동의한 셈이므로 그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 ① 갑: 정부가 주는 이익이 없어도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② 갑: 정치적 의무의 원천인 이익에 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을: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생긴다.
④ 을: 정치적 복종에 대한 동의는 어떤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다.
⑤ 갑, 을: 정부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천부적 재능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차등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 사회적 행운이나 천부적 재능을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을: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원리는 과정적인 분배 원리와 달리 정형적 원리이다.

< 보 기 >
ㄱ. 갑: 모든 가치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분배해야만 한다.
ㄴ. 을: 정형적 분배 원리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ㄷ. 을: 취득과 이전 과정의 정당함이 소유 상태를 정당화한다.
ㄹ. 갑, 을: 최대 행복의 원리를 분배 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눈이 좋은 색을, 귀가 감미로운 소리를 추구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만 군자는 이런 것을 성(性)이라고 하지 않는다. 군자는 부자 사이의 인(仁), 군신 사이의 의(義)를 성이라고 한다.
을: 눈이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색깔에 눈이 어지럽혀지고, 귀가 지나치게 밝은 자는 온갖 소리에 귀가 어지럽혀진다. 인의를 내세우는 자는 덕을 뽑아 버리고 성을 막아 명성을 얻으려 하는 자이다.

- ① 갑: 인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성이 훼손된다.
② 갑: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야 덕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눈과 귀의 작용에 순응하고 시비를 구별해야 한다.
④ 을: 인의와 육체적 욕구는 모두 하늘이 부여한 성이다.
⑤ 갑, 을: 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아도 오랫동안 익혀 온 습기(習氣)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 의지해 닦아서 점차로 그 공(功)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일러 점수(漸修)라고 한다. 이는 마치 성인(聖人)의 씨앗을 오래 길러야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

< 보 기 >

ㄱ. 경전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ㄴ. 보통 사람도 본성을 깨달으면 곧바로 성인이 된다.
 ㄷ. 불성을 자각한 후에도 정혜(定慧)를 함께 닦아야 한다.
 ㄹ. 부처의 마음[禪]과 부처의 말씀[教]은 서로 다르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해도, 그 어떤 독재 정치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노예의 길로 이끌 것이다.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최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 계급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독재를 통해 모든 생산 수단을 프롤레타리아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① 갑: 복지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② 갑: 실업이나 공황 문제는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③ 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은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다.
 ④ 을: 노동자 혁명은 계급과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⑤ 갑, 을: 국가가 존재해야만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

18.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서학(西學)은 이(理)가 만물의 근원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형체가 있는 것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인식한다. 이를 버리고 학문을 논하는 것은 사설(邪說)이다.
 을: 서학에는 사유[思]는 있지만 참된 기도[呪]가 없다. 그들의 말과 글에는 차례와 순서가 없으며,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고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다.

- ①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모두 배척해야 하는가?
 ②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③ 유교적 가치는 이상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④ 만민 평등사상에 따라 신분 차별을 없애야 하는가?
 ⑤ 서양 학문을 통해서도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는가?

19.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원적으로 볼 때 '내부의 선한 신', 즉 선한 이성을 의미한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을 따른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을: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적 덕과 함께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인 믿음, 소망, 사랑도 필요하다.

< 보 기 >

ㄱ. 갑: 신과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의 본질은 이성이다.
 ㄴ. 갑: 행복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피한 상태이다.
 ㄷ. 을: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ㄹ. 갑, 을: 진정한 행복을 위해 신에 대한 관조가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간의 내면에는 신에게 잊힌 채 세상에 남아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다. 신 앞에 홀로 서기로 결단할 때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을: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스스로를 내던지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인간도 신의 뜻에 따라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을 선택의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보았으며, ㉡ 신앙으로 절대자에게 귀의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인간을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로 보았으며, ㉣ 주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감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윤리 규범을 따르는 삶을 통해 불안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